

Ⅰ 본 연구는 2005년도 한국산업간호협회 연구지원사업으로 수행되었음 Ⅰ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한 비제조업 중규모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Need of Safety and Health Training for Office Workers in Middle-sized Enterprises Excluding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

이 상 희 / 한국산업간호협회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하여 비제조업 중규모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비제조업 중규모 사업장 200개소에 근무하는 411명의 자료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면접조사원이 대상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는 총 411명으로 남자 65.0%, 여자 35.0%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6.1세 이었다. 현 직장 근무경력은 평균 경력은 5.6년 이었으며 총 근무경력은 평균은 9.6년 이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3시간 이었다. 비교대근무가 80.0% 이었고, 정규직이 88.3% 이었다.

2. 연구대상자의 건강신념모델은 행동의 계기가 평균 4.0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각된 유익성이 평균 3.67점, 지각된 민감성이 평균 3.43점, 지각된 심각성이 평균 3.18점, 지각된 장애성이 평균 3.12점 순이었다.

3.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는 안전보건교육이 법으로 정해진 것을 알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0.5%, 안전보건교육이 법으로 정해진 것을 모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5.8% 이었다.

4.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많을수록, 기혼자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는 기혼자인 경우, 비정규직인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지각된 민감성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과 상관성이 가장 높았고,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요구와도 상관성이 가장 높았다.

6.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각된 장애성이 낮은 경우, 행동의 계기가 높은 경우 이었으며,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지각된 민감성이 높은 경우, 지각된 장애성이 낮은 경우, 행동의 계기가 높은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비제조업 중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건강신념이 높아지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제조업 중규모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는 특히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시

사함으로써 개인의 신념에 민감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며 행동의 계기를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안전보건교육을 경시하는 장애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